

나니아 연대기 『새벽 출정호의 항해』에 관하여

글: 할리 와그너(Holly Wagner)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에게 맡기신 인생에는 용기가 필요한 때가 있을 것이며, 또 위험 감수를 요구하는 때도 있을 것이다.

마태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온 것은 결코 인생 편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편한’ 인생 즉 안전하고도 안락한 인생을 찾는데 수년 허비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이 때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짐을 보기 위함이다. 이 과제에는 결코 안전하거나 ‘편안’하다 일컬을 만한 면모가 없다. ‘안전한 울타리의 허상’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후퇴할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미가 5장 1절 말씀에 따르면,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우리는 현재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이 전쟁은 왕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당신과 내가 그분의 군사로 임명되었다. 불의가 만연한 곳에, 공의를 세우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 바로 이 이야기가 묘사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나니아 시리즈 영화 가운데 최신작인 <새벽 출정호의 항해>라는 대단히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우리 각 개인이 이루어야 할 사명과 극복해야만 하는 유혹들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접하게 된다.

1

에드먼드가 사촌동생 유스터스에 대해 불평하자 루시는 잘생긴 외모 가진 일병과 연애하는 아름다운 간호사를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간호사 흉내를 내기 시작한다. 여기서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로는 루시가 사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다는 것, 둘째로는 루시에게 사랑과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따라서 루시가 사랑과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흉내낸다는 것이다.

- 이미지에 대해 집착하고 열광하는 사회 속에서 사랑과 아름다움에 관련된 무언가에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 영화·잡지·텔레비전·음악은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한 사고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 여성·사랑·아름다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와 대중매체를 통해 보게 되는 내용물이 보여주는 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2

왜 우리 여성들은 다른 누군가가 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지 필자에게도 의문으로 남는다. 하지만 여태껏 그렇게 해왔으며 어쩌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17년 전 즈음 필자는 지구상에서 나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이며, 살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하던 때가 문득 떠오른다. 그래서 그런 내게 지침이 될 만한 것으로 인생의 여로를 좀 더 앞서 간 다른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나는 단지 그들 자신이 되려고 시도했었다. 나는 그들이 입는 똑같은 옷을 입고 그들의 머리 모양을 따라 하며 기본적으로 그들 자신이 되려고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각자는 역사가운데 이 때에 우리 자신만의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하며 만족할 때에만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동기가 유발된다면 좋지만 그것을 넘어 비교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은 파괴적이기에 나쁘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다. 내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보다 나은 '나'가 되는 것이다.

루시와 에드먼드는 수잔으로부터 실망스런 편지를 받는다. 에드먼드는 "역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가 보지"라고 말했다. 또한 루시는 거울을 응시하며 물었다. "내가 수잔 같아 보이긴 할까?"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일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만한 일이다. 배후에 숨겨진 질문은 "나도 아름다운가?"라는 것이다.

- 지금껏 영화를 통해 볼 수 있는 바는 에드먼드와 루시, 모두 그들이 가치 있게 평가되지 않는 환경에 있다는 것이다. 환경이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나'의 유일무이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세우기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는 바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그리고 최고의 자신의 모습!)이 되어보라는 격려다. 부모나 가까운 친척 또는 친구들이 부재하거나 말이 없을 때 또 비판적으로 대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우리 내면의 대화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면의 대화가 부정적인 양상을 띠게 될 때 우리의 관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 유스터스는 에드먼드와 루시를 고아라며 비아냥거린다. 우리 중에 누군가 고아로 자라나지 않았을지라도 고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사랑 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하며, 심지어 자신 속에 아름다운 구석이 존재하거나 할까 의심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당신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는가?
- 내면의 대화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거울 앞에서 시편 139편 낭독해 보아라. 다음 구절을 암송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극복하게 해 줄 것이다.
- 시편 68편 5-6절, 시편 27편 10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1장 5절, 에베소서 2장 10절, 시편 45편, 아가서 4장 7절 말씀

3

새벽 출정호가 육지를 발견했을 때 얼핏 보니 육지에 나니아의 깃발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해변가에 발을 디딘 후, 그들은 성을 발견하게 된다. 성 안에는 펼쳐져 있는 거래 장부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노예상들이 섬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즉시 공격을 받았다. 캐스피언과 에드먼드는 포로가 되었고, 루시와 유스터스는 노예매매장으로 끌려갔다

-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만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신 매매는 국제적인 문제이며 해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는다. 실제로 인신매매는 나이키·구글·스타벅스를 모두 합한 총 매출액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http://www.callandresponse.com/about.html>

- 당신은 이 일이 바로 이곳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 당신은 납치 후 인신 매매 당하는 피해자가 느끼게 될 공포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역사적으로 다른 시기에 일어난 인류의 집단적인 해방의 사례들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이 세계적 문제에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일상 생활 속에서도 의식의 전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 참극과 투쟁하는 지구에는 두 단체가 있다. 그 가운데 우리 지역 교회의 중심과 유사한 두 단체가 있다.

- 크리스틴 케인이 설립한 A-21 캠페인은 그리스와 동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인신 매매에 맞선다. 크리스틴은 일년 내내 가족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전세계적으로 의식을 고취시키

는 활동을 벌인다. 세계적으로 의식을 고취시키고 단체를 지원하는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 www.A21.com에 방문하면 된다.

- 트레저 라는 이름의 또 하나의 단체 설립자는 하모니 더스트다. 하모니와 그의 일원들은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인신매매에 맞서 미국 전역에 걸쳐 있는 다른 아웃 리치 팀까지 동원해서 그들의 지역 사회에서 이 문제에 맞서도록 훈련시킨다. 이 운동에 동참하기 원한다면 www.iamatreasure.com을 방문하라.

에드먼드와 루시가 정의의 세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특정한 시기에 나니아로 보내진 것처럼 당신과 나는 엄청난 양의 불의가 팽배한 곳에 정의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역사 가운데 바로 이 시점에 지구로 보냄 받은 것이다. 바로 지금은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할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은 가난과 인류의 끝없는 고난, 고통, 아픔, 학대,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순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당신과 나를 믿고 계신다! 역사의 이 시점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내가 맡겨진 임무를 다하리라 믿고 계신다.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니 우리를 둘러싼 짙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 이 곳에 와 있음을 기억하라.

#4

린스(Rhince)의 어린 딸 게일(Gael)이 아버지를 따라 선박에 탑승한 행위는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이었는가! 어머니는 노예상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한 상태였으며 린스는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해 선원들과 합류한 것이었다. 루시는 일원이 된 게일을 환영한다. 게일은 여왕 루시에게 경의를 표하며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납치당하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루시의 모습을 게일이 목격하게 되어 존경심을 가진 것 같다. 나는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든다. 성경적인 생각인 것 같다. 디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보다 나이가 지긋한 여성들에게 (염두할 것은 우리 보다 젊은 여성이 항상 있는 세상이기에 우리 모두 보다 나이가 지긋한 여성들이라는 점이다!) 젊은 여성을 훈련시키라는 지침을 준다. 우리는 모범적으로 이끌 책임이 있다.

- 삶에는 때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에 처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유방암과 투쟁하고 싶어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지만 해야만 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어서서 용기와 힘을 가지고 주변 여성들을 이끌어야만 했다(물론 침대보 속에서 숨어버리고만 싶었던 아침도 수두룩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용기를 내야만 했던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가? 이는 당신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결혼에 있어서 역시 넘겨야 했던 몇몇 고비들이 있었다. 이때, 젊은 자매들에게 결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함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신이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당신의 딸인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인가? 이웃집 아이들인가?

#5

나니아 속에서는 루시는 여왕이었다. 왕족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니아와는 멀리 떨어진 캠브리지에서 그녀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도 그녀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러나 캠브리지에서 살 때조차도 루시는 여전히 나니아의 한 여왕이었다. 당신은 왕의 자녀다. 천국의 눈을 통해 보면 당신은 왕족이며 이 땅에서 그러한 지위가 가져다 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끌어야만 하는 것이다.

- 왕의 자녀라는 사실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 왕족 신분을 잊어버렸던 적도 있었는가?
- 당신의 일상 생활과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천국의 관점을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
- 당신의 최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준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시간을 보다 더 투자할 수 있겠는가?

#6

해변에서 낮잠을 자던 루시를 악한 영들이 납치한다. 이런 영들이 루시가 납치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여자였기 때문이다. 2) 글을 읽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물론 해학적인 요소가 섞인 장면이었지만, 그것은 나를 심각하게 만들었다

- 현재 세계 곳곳에는 여성에 대한 적대적인 의제가 있다. 우리에게서 원수가 있으며, 그는 우리를 증오한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인해 사랑 받는 동시에 미움 받기도 한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의를 당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억압받는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난·불의·기아·공핍의 정도가 높다. 세계 인구의 절반을 억압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행위다. 여성이 '이류 시민' 취급을 받는 나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그들의 필요에 대해 조사하며 당신의 여자 친구를 모아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편지쓰기, 이불짜기, 옷과 장난감 부치기, 재정적으로 기증하기 등을 통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들 말이다.

#7

코리아킨은 선원들에게 홀로그래피 지도로 나니아를 보여주며 어둠의 섬을 지목한다. 이곳은 바로, 그들을 앞서 탐험여행에 나선 여섯 명의 영주들이 보냄을 받았던 곳이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진지한 경고를 내린다. 마지막으로 건네는 격려의 말은 다음과 같다. "굳건해져라.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세상에 존재하는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 안의 어두움을 극복해야만 한다." 이로부터 루시는 다른 사람이 되어보고자 하는 열망(다시 말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에 직면하게 되리라 추측할 수 있다.

- 우리는 모두 내면의 고민과 문제들이 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자주 주장한다. "싸움은 마음 안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내면의 싸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당신이 가장 믿을만하며 안정감을 주는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기억할 것은, 친구란 당신이 최고의 자신이 되도록 격려해 주며, 그 이하로 느끼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별력을 사용하여 진실로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당신은 내면의 고민을 그들과 공유해본 적이 있는가?
- 당신의 인생에 있어 두려움이나 질투는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가? 이런 감정들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두려움과 질투심을 극복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

#8

루시가 주문의 책을 발견한 후 그녀가 다음과 같은 문구를 읽기 시작하자 뒤에서 푸른 빛의 안개가 맴돌기 시작한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주문을 가지고 그녀가 되어라 -당신이 늘 상 되고 싶어온 그녀 말이다." 이에 따라 책은 거울이 되며 그녀는 언니인 수잔을 보게 된다. 주문으로 수잔으로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서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름다워." 루시가 바로 이 주문이 쓰인 쪽을 책에서 찢어내려 하자 책은 마치 사나운 사자와도 같이 포효한다.

우리 모두는 지구상에서 위대한 일을 할 의무가 있다.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능력과 은사는 모두 다르며, 이 도구들을 사용하여 앞서 언급한 위대한 일들을 성취해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서로를 시기하며 낭비할 시간이란 결코 없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나에게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고유한 은사와 능력과 재능들이 있다. 당신 역시 그렇다. 당신의 은사와 재능은 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결코 도움이 될 수 없기에 그것들을 탐낸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행동이다. 때로 우리 여자들은 서로에게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운 행동들을 저지른다. (마치 내가 어떤 일들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하지는 말길!) 고유의 재능을 가진 여자를 보고 자신의 인생을 경주하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격려해주기보다는, 그녀를 질투하며 못된 행동을 한다.

- 내가 관찰한 한 가지가 있다면, 자기 자신보다 "나은" 즉 보다 똑똑하며, 곱고, 날씬하며, 몸매가 좋은 여자는 어디를 가나 관계없이 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은 고통스런 시간낭비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데 허비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런 행위는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다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 적이 있는가?
-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취했는가?

영화 <백설공주> 대사 중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라는 어구가 기억나는가? 나는 이런 사상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첫째로 그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예쁜' 누군가

가 있다는 의견을 내포한다. 둘째로 타인과 비교시키려는, 우리 안에 내재된 유혹을 유발한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일인자가 되기 위해 타인을 파괴하는 과정에 착수하게 한다.

오늘날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명백한 사실이다. 슈퍼마켓에서 배회하다가 <피플>지의 「세상에서 가장 빼어난 50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허벅지나 코 생김새, 또는 출산 이후로 그토록 회복하고 싶었던 몸무게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주변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그런데 미의 기준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언제부터 그런(당최 누가 정한 것이기에) 생각에 동의하는가? 지난 25년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여자들을 이끌며, 세계 각지에 위치한 국가들을 방문하고 하나님의 딸로서 내재된 가치를 격려하는 운동을 벌이며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는 자기 자신의 미는 감추며 다른 사람의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극단적인 행위를 목격하게 되었다. 아시아 대륙에서는 흰칠한 키를 만들기 위해 다리 안에 철 막대기를 집어넣는 등 비정상적인 성형 수술부터, 피부색을 희게 하기 위한 피부염색까지, 실로 그 사례는 다양하다.

나는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싶다. 천국의 기준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표 여성’(God chicks-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여자를 가리키는 조어-역자)으로 독특하게 지으셨다. 각양각색의 모습과 사이즈, 색, 조화 등 그가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지 시편 139편은 말해준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편 13-16절)

#9

기준에 순응하기를 유혹하는 세상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가치·목적·잠재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때로 우리는 순간적인 유혹은 물리치더라도 우리를 최고의 선택에 미치지 못하게 것들을 붙잡고 있곤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가정 하에 (알다시피 잎사귀 있는 푸른빛 도는 음식을 전보다 많이 먹는 것),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저 구석 부엌 선반에 M&M 초콜릿을 몇 봉지 보관해두었다고 치자. 아마도 최선의 결정은, 우리 능력 범위 내에서 유혹을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루시는 자신이 책에서 찢어낸 미에 관한 주문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녀가 침대에 누운 채 유혹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녀는 게일을 흘끗 본 후 그녀의 머리를 덮고 인생을 바꿀 주문을 외운다.

- 루시는 왜 책에서 찢은 주문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한 후, 난감하거나 심지어 지루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차선책을 보관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위를 취할 필요를 느끼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 루시는 주위를 둘러보며 혹여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 후 결국 숨었다. 우리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굴복할 때 혹여 누가 지켜보고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심리적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우리가 숨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당신이 숨기고 있는 행동양식·태도·습관·상처는 없는가? 그 사실을 이번 주안에 안정감을 주며 신뢰할 가능한 친구와 나누어보라. 이것은 인생에 있어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경험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 10 장 13 절을 공부해보라.

#10

주문을 외운 후 수잔으로 변한 루시는, 루시라는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정작 그녀 자신은 수잔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한다. 나니아란 결코 없다. 자신은 그런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는다. 아슬란이 나타나 묻는다. “그대여. 어떤 일을 저질렀는고. 당신은 자신이 없어지기를 소망했고 그것은 훨씬 많은 것을 잃게 했다”

-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수의 거짓말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슬란이 루시에게 묻듯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이미 답을 알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 “너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구나.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는 아슬란의 격려는 당신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는가?

#11

루시는 주문의 끔찍함을 절감하며 용서를 구한다. 인간 한 명 한 명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다. 유일무이한 존재다.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존재다. 때때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와도 같지 않을까 고민할 때가 있다. 누구도 당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 당신 삶에 있어 당신을 지도자로 여겨 모델로 삼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 당신이 만일 누군가가 되기를 결정한다면, 오직 당신이기에 가능한 것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낄 만한 몇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보라.
- 루시가 극복해야 하는 유혹은 바로 언니와 같아지려는 자신의 욕망이었다. 유스터스는 재

물의 유혹, 그리고 에드먼드는 힘의 유혹을 뿌리쳐야 했다. 우리는 모두 유혹을 받는데 이것들을 반드시 이겨내야만 한다. 무엇이 당신을 유혹하는가?

-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시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장애가 되는가?
- 당신이 유혹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경고하신 경험이 있는가?
- 루시의 경우와 같이 당신은 가고 있던 방향으로부터 돌아섰었는가?
- 당신의 삶에 당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도록 들을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12

우리 중 몇몇은 지구상의 지옥(강간·낙태·성폭행·섭식장애)을 경험하고 극복한 사람들도 있다. 당신과 가까운 곳 어딘가에 당신이 이미 경험한 바를 겪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있다. 그들은 당신이 아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캐스피언, 리피치프, 에드먼드, 루시, 게일은 용으로 변한 유스터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해변에서 그와 함께 자리를 지킨다. 게일이 목에 두른 자신의 로켓(사진 등을 넣어 목걸이에 다는 작은 상자)안을 들여다보며 엄마가 그림다고 고백한다.

- 바로 이 순간 루시가 게일과 관계되어 있음은 얼마나 중요했던 것일까?
- 당신의 이야기는 어떤가. 당신이 극복한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가운데 당신 주변의 여성이 극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 이번 주에 그녀와 커피 한 잔 나누며 당신이 쌓은 지혜를 나누어 보라. 인생은 홀로 살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가 모두 필요하다.

필자의 유방암 극복기를 시청하기 원한다면 www.oasisla.org/video-archive/를 방문하라.

#13

나는 유스터스와 리피치프의 관계를 좋아한다. 유스터스는 버릇없지만 어떤 면에서 그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나타낸다. 우리 모두는 '있는 그대로' 꼬리표를 달고 살아간다. 진실한 우정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하며 그들 역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 유스터스가 용으로 바뀌자 리피치프는 그를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은 어쩌면 위대한 일일 수 있으며 그에게 위대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고 말이다.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말이다. 과연 그의 말이 맞았다! 결국 유스터스가 그들 모두를 구해주며 끝이 난다!

-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 내 친구가 갑자기 용으로 변한다면 나는 약간 겁 먹을 것

같다. 당신은 당신이 돌보는 사람이 역경에 처해있을 때 그 상황을 넘어 그를 통해 이뤄질 위대한 목적을 볼 수 있었던 적이 있는가?

- 마리아와 엘리자벳의 상황을 고려해보라. 엘리자벳은 마리아가 정신이 조금 나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으나 그 대신 기뻐하며 마리아를 격려하고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해주었다. 친구가 그의 목적을 되새기도록 격려해 준 가장 마지막은 언제였는가?

- 당신에게 붙어있는 '있는 그대로' 꼬리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나와 고래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나는 유스터스가 용의 몸일 때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고 꼬마남자아이의 몸일 때 자신이 얼마나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깨닫는 사실이 그렇게 유쾌할 수 없다. 요나와 다를 바 없이, 아이에게 영원한 변화가 일어났다. 당신이 만약 환란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것임을 기억하라.

#14

영화 후반에 루시는 다른 인물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 갑옷을 두른 채로 나온다. 아이는 게일과 대화를 나눈다. 게일이 루시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커서 꼭 여왕님처럼 되고 싶어요." 루시는 지혜롭게 대답한다. "너는 커서 꼭 네 자신처럼 되어야 한다."

루시는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 누가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 도움과 격려를 주기 위해 당신의 삶으로 초대할 수 있는 여자 후배로 누가 있는가?

#15

루시가 마법사의 성에서 가장 먼저 읽었던 단어는 보이지 않는 물체를 보이게 하는 주문이었다. 아이가 주문을 외우고 있을 때 캐스피언, 리피치프, 에드먼드는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우고 있었다. 이전에 그토록 두려움을 심어주던 영들이 실제로는 키가 작고 통통하며 이상한 생김새를 가져 두려움을 주기는커녕 웃음을 선사하는 존재들이었음을 알게 되자 그들은 소리 내어 웃기 시작했다. 종종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때로 무서워 보일 수 있으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우리를 불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원수의 실체가 드러날 때에만 그는 단지 움직이는 그림자 교묘한 속임수에 불과할 뿐임을 깨닫게 된다.

* 당신이 현재 맞서고 있는 원수는 무엇인가? 결혼 문제? 자녀 걱정?

* 각 문제나 고민거리에 연결되어 나타나는 감정들을 써보라. (예를 들어 혈기 두려움 의심 걱정 불안) 그 감정에 싸우는 구절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서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라.

*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읽어보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가?

가령, 때로 두려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두려움은 감정일 뿐 결정적 요인이 아니다. 결혼에 있어, 사역에 있어, 자녀 양육에 있어 다시 한 번 해보는 것이 두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말아라. 다시 한 번 시도해라. 두려운 채로 하라.

#16

새벽 출정호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자 캐스피언은 과거와 맞서게 된다. 에드먼드는 다시 익숙한 마녀의 영과 마주친다. 이 영화 속 악과 우리의 삶 속 마귀는 결코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 특징이 눈에 띈다. 마귀는 우리를 과거에 메이게 하고 익숙한 영 (유혹, 습관, 상처, 고통)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과 같이 적과 그의 전략, 그의 속임수를 알아야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 당신의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과 씨름한 적이 있는가? 마음에 되풀이되는 장면들이 있는가(이전에 아버지가 했던 말이나 당신이 피해자가 되었던 상황 또는 저질렀던 실수 등)?

*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번 주 시편 103편 11-12절 말씀을 읽고 용서받은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확신하라.

* 당신을 위협하는 익숙한 영이 있는가? 상처나 고통 또는 습관 말이다. 이런 것들이 유혹할 때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친구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나누라. 그런 후에 에드먼드와 같이 "안돼!" 라고 외쳐라. 아예 지금부터 악마와 싸우며 소리 지르기를 연습해도 좋은 것이다.

나중에 캐스피언은 자신이 빼앗긴 것에 너무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더 집중하는 편이 나는데 말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지 "위대하시며 스스로 계실 분"이나 "위대하시며 스스로 계셨던 분"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라. 현재 중심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라. 지금 이 순간 중심으로 말이다. 당신 바로 앞에 놓인 것을 놓지 말아라!

#17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 바로 이 때, 이 땅에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태어났다. 살아있다는 것이 지금보다 숨막히도록 흥미진진했던 때가 없었을 것이다. 역사 가운데 바로 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루시가 선원들 곁을 지키며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싸우고 바다뱀 배를 공격하자 게일을 보호하는 모습에서, 게일이 수잔의 활과 화살을 잡기 위해 손 뻗는 루시에게 그녀가 할 수 있다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모습에서 이를 볼 수 있다.

- 언제 어디에나 신음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웃과 우리 공동체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쥐고 있다. 너를 필요로 하는 친구나 이웃, 당신 공동체에 속한 한 명을 위해 그 열쇠를 사용했던 마지막은 언제였는가?
- 전쟁에 동참할 때가 왔다. 이것에 사람들의 영혼이 달렸기에 끔찍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방관할 여유란 결코 없다.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가? 활동 재개 또는 최초로 활동 개시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 (회복 단체나 지역 교회 성경공부 모임 또는 사회정의 운동에 동참해보라.)

당신이 나이가 있는 편이라면 주변의 보다 젊은 여성들이 당신을 격려하고 지지하며 당신의 인생 목표를 강화시켜줄 수 있음을 기억해라. 그들이 우리를 필요해하는 만큼이나 우리 역시 그들을 필요로 한다!

#18

영화 속 가장 좋아하는 대사 중 하나는 전쟁터로 나서는 일원들을 격려하는 캐스피언의 연설이다.

“여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간에 지금 내 앞에서 있는 모든 영혼은 새벽 출정호 선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았다. 우리는 함께 먼 길을 왔으며 또한 함께 환란에 맞섰다. 우리는 함께 다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 결코 두려움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아니다. 강하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세계와 우리 나니아인의 생명이 이에 달려있다. 우리가 구하기 위해 이곳으로 온,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 아슬란이 있다. 나니아가 있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함께 먼 길을 왔으며 추구할 만한 대의(大義)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함께라면 불가능도 가능이 되며, 확실히 추구할 만한 대의가 있습니다!

* 이 구절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창세기 11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 위 구절이 담고 있는 모든 의미가 확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과 내가 하나되어 하나의 민족이 된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란 없을 것이다! 에이즈 위기나 노숙이나 ____ . 당신이 빈칸을 채우면 된다.

*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고유한 존재로 다른 이와 다르게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 되기 위해 모두 다 똑같은 모습이 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하나되어 나아가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 추구할 만한 대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인가? 고아를 구제하는 일인가? 아니면 ____? 당신이 빈칸을 채우면 된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테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가? 싸움에 다시 한 번 뛰어들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9

결말 부분에서 아슬란이 중대한 명언을 남긴다. "아이들이 환영한다. 잘하였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그것으로 당신이 한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세 명 가운데 두 명은 자원을 배로 늘렸지만 한 명은 자원을 땅에 묻어두었다. 자원을 잘 사용한 이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충신했다. 즉 적은 것에 충성하였기에 더 많은 것을 맡게 될 것이다. 당신과 내게 주어진 인생은 단 하나 뿐이며 야고보에 의하면 이 인생조차 안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안개가 얼마나 미량의 부피를 가졌는지 실감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영원과 빗대어 본 것이다.

-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 당신 손에 든 것은 무엇인가? 결혼, 자녀, 사역, 직장, 글쓰기의 은사, 은행 통장인가? 당신은 어떻게 손에 든 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가?
-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있는 것(그것이 비록 얼마 안 되어 보이더라도)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며 상상 초월할 정도로 놀라운 꿈 말이다)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다. 당신은 현재 당신의 손에 있는 것과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우리 모두 예수님 뵈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유일무이한 인생을 지혜롭게 보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당신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 이상의 복잡해지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구약성서 잠언서 31장 10절 말씀

